

# 프로그램 진행개요

프로그램명	도봉산 둘레길 시나리오 (도봉옛길)		
활동목표	도봉옛길에 위치해 있는 묘비, 사찰 등을 보며 역사문화자원에 대해 알아보고 둘레길을 탐방하면서 일상 속에서 잊고 있던 자연과 역사에 대한 소중함을 느끼고 국립공원의 중요성을 알린다.		
해설주제	도봉옛길의 지명유래와 역사·문화 탐방		
해설재료	도봉옛길 자연자원, 역사·문화요소	소요시간(')	2시간

## 프로그램 진행순서

해설단계	해설주제	주요내용	준비물	소요시간(')
동기유발	인사하기 ,둘레길 소개	자기소개, 도봉옛길 소개하기		
해설주제	무수골 이야기	무수골 유래, 이인신도비 설명		
	사찰 이야기 1	도봉사, 능원사 소개		
	도봉동문 이야기	도봉동문, 바위글씨 이야기		
	사찰이야기 2	광륵사, 청소년수련원 소개		
	병커 소개	병커이야기		
마무리	마무리하기	끝인사, 당부말씀		

신청인 :           북한산국립공원사무소장 (서명)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인사하기 및 무수골 유래</p>	<p>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자연환경안내원 ○○○입니다. 여러분과 만나게 되어 정말 반갑습니다.</p> <p>여러분께서 와계신 곳은 어디일까요? 바로 북한산둘레길입니다.</p> <p>그리고 북한산 둘레길 중 도봉산 구역을 잇는 도봉옛길에 와 계신 것입니다. 도봉옛길을 함께 걸으면서 이 구간에서 눈여겨보실 만한 것들을 알아보며 둘레길을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p> <p>함께 탐방할 도봉옛길은 무수골에서 다락원으로 이어지는 도봉산 둘레길 3구간이며 거리는 3km, 2시간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p> <p>그럼 무수골 구간에서부터 도봉옛길을 탐방하도록 하겠습니다.</p> <p>무수골은 도봉산 입구 마을을 경유하는 구간으로 서낭당이 있는 마을이라고 하여 생겼다는 설과 세종이 재위시 이곳에 왔다가 원터 약수터의 물을 마시고 물 좋고 풍광 좋은 이곳이야말로 아무런 근심이 없는 곳이라고 하여 무수골로 칭해졌다는 이야기도 전해지고 있습니다.</p> <p>이 부근에는 묘역이 많이 눈에 띄는데, 조선 왕족의 일원이었던 이인후손이 살고 있는 곳이며 그들의 조상무덤이 있는 곳으로, 왕족의 무덤이라 하기엔 화려하지 않고 단아한 모양새를 하고 있습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이인신도비 설명	<p>그중 서울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이인신도비에 대해 잠깐 설명 드리겠습니다. 신도비란 죽은 사람을 기념하기 위하여 생애를 기록하여 무덤 앞에 세우는 비석입니다.</p> <p>이인신도비 묘역은 세종대왕의 손자이자 문종, 세조의 조카였던 이인과 그의 부인 영해군, 그의 동생인 길안군 및 아들인 완천군과 강녕군의 묘가 같이 모여 있는 신도비 묘역으로서 1509년에 건립되었는데 비문은 당시 영의정 남곤이 글을 짓고, 해서체의 당대 최고 명필 김희수가 썼다고 합니다. 500여년이란 긴 세월이 지났건만 기후조건과 위치가 좋은 지리적 여건 때문에 오염의 위험이 적어 탈자나 마모가 없이 명필의 아름다움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p> <p>부근에 많은 왕족묘와 왕족과 함께 묻혔다는 노비 금동의 사연이 숨어있는 이곳 무수골. 과거 도봉마을 사람들과 무수골의 왕족들이 다녔을 옛길을 걸어보면서 근심걱정을 덜어보시기 바랍니다.</p> <p>이제 무수골을 벗어나면 도봉산 탐방로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 곳에는 도봉사, 능원사, 광륜사라는 3개 사찰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들 사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b>도봉사, 능원사 설명</b></p>	<p>도봉사는 고려 제4대 임금인 광종이 국사로 임명한 혜거스님께서 창건한 절입니다. 이후 고려 제8대 임금 현종이 거란의 침입으로 개경이 함락되었을 때 도봉사로 피난하여 정사를 돌보았던 곳이라고 합니다.</p> <p>이렇게 천년의 역사가 깊은 도봉사는 그 동안 전쟁과 종교분쟁, 화재로 여러 번 소실되어 온 사찰로서 1961년 법당 및 부속 건축물을 복원하여 현재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p> <p>도봉사를 지나면 능원사가 있습니다.</p> <p>능원사는 한국불교 조계종 소속으로 (가장 교세가 융성한 것이 대한불교 조계종) 미래불인 '미륵불을 본존불로 모시는 사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을 모시는 전각이 용화전 (석가모니불을 모신 곳을 대웅전)입니다.</p> <p>능원사는 30년 전부터 있었던 건물을 헐고 새로 웅장하게 지어 건물이 깔끔한데요, 건물에 금장을 입혀 아주 장엄하게 정말 화려하고 눈이 부십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지붕이나 공포(처마 끝의 무게를 받치기 위하여 기둥머리에 짜 맞추어 댄 나무쪽)에 용머리를 장식하는데 여기 능원사에서는 봉황으로 장식한 점이 특이한 모습입니다.</p> <p>능원사를 지나 통일교라는 다리를 건너서게 되면 도봉탐방지원센터가 보이는 도봉산 입구가 나오게 됩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도봉동문 및 광륵사 설명	<p>도봉산 입구에서 이정표를 따라 올라가게 되면 우암 송시열 선생의 '道峰洞門(도봉동문)'이란 글씨가 새겨진 커다란 바위가 눈에 들어옵니다.</p> <p>송시열 선생이 도봉서원을 참배하고 서원 앞 계곡에 남긴 글씨인데, 도봉서원의 소재와 명산의 입구임을 알려주는 이 글씨에서 동문은 동천(洞天)으로 들어가는 문이란 뜻입니다. 동천은 예부터 신선이 놀던 계곡을 말하는데, 그러면 지금 우리는 동천으로 들어가는 셈이 되는 거죠. 하하</p> <p>도봉동문을 지나 올라가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렸던 3개 사찰중 하나인 광륵사가 나오게 됩니다.</p> <p>광륵사는 신라시대 (서기673년)의상조사가 창건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p> <p>당시의 사찰이름은 만장사였으며, 천축사, 영국사와 더불어 도봉산의 대표적인 가람으로 성장하였으나 점차 쇠락해 오다 임진왜란으로 인해 대부분 소실되었다고 합니다. 1970년 이후 사찰을 대대적으로 중창하였으며, 2002년 사찰이름을 광륵사로 새롭게 개원하였다고 합니다.</p> <p>광륵사는 원래 조대비의 별장터로, 조선시대 후기 조대비 신정왕후가 부친인 풍은부원군 조만영이 죽자 풍양조씨 서산과 인접하고 산수가 수려한 도봉산 입구에 만장사(현 광륵사)를 새로 짓고 자신의 별장으로 만년을 보냈던 곳입니다. 그 후 고종 때 흥선대원군이 이곳에서 휴식을 취하며, 국정을 보기도 했었던 곳입니다.</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청소년 수련원 소개 및 벙커 설명</p>	<p>광륵사 건너편에는 국립공원 청소년수련원이 보이는데요, 국립공원내의 자연자원과 역사문화를 활용한 체험학습이 가능한 종합 청소년수련 시설입니다. 국립공원 청소년수련원은 미래세대인 청소년들이 심신을 단련하고, 생태체험과 환경교육의 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었습니다.</p> <p>이제 포장된 길에서 벗어나 은석암 방향으로 이어진 탐방로를 따라 산길로 접어들게 됩니다.</p> <p>20분 정도 산길을 따라 가다보면 지금은 사용하지 않는 군 벙커들이 눈에 띄게 됩니다. 이 벙커들은 한국전쟁 이후 만들어진 것으로 서울을 지키는 마지막 방어선 역할을 했던 곳이란 느낌이 나게 합니다.</p> <p>여기서 벙커 [bunker]란 원래 엄폐호식으로 만든 잠수함 기지를 말하고, 같은 의미로 토치카[tochka]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두꺼운 철근 콘크리트와 같은 것으로 공고하게 구축된 구축물로 그 안에는 기관총·대포 등의 화기를 비치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제2차 세계대전 전에 소련이 만주와 국경지대에 구축한 영구진지를 가리키는 고유명사였으나, 그 후 일반명사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벙커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대공 방호가 된 지하호를 가리키는 용어로 쓰이고 있습니다.</p> <p>이 벙커와 같은 군 시설물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것이 우리 민족의 아픈 상처가 아직 남아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지 않으신가요?</p>

# 해설 시나리오

프로그램명	
-------	--

해설주제	세부 시나리오
<p><b>마무리 및 당부 말씀</b></p>	<p>병커를 지나면 안골 공원지킴터가 나오고 그 길을 따라 탁 트인 하늘을 보면서 걸을 수 있는 넓은 흙길이 나옵니다.</p> <p>이 평평한 길을 따라 걷다보면 길 양쪽으로 은사시나무를 비롯한 여러 나무들이 쪽 늘어서 있어서 한적하고 아늑한 느낌을 주는 구간으로 삼림욕을 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산책길이라고 하겠습니다.</p> <p>이 구간을 따라 다락원까지 오게 되면 도봉옛길의 마지막지점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도봉옛길 탐방을 마무리하겠습니다.</p> <p>지금까지 2시간 조금 넘게 도봉옛길을 함께 걸었습니다. 같이 오시면서 도봉옛길이 간직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어떠셨는지요? 그냥 지나치게 되면 몰랐던 이야기들을 듣고 보는 느낌이 처음의 느낌과는 다르지 않으신가요?</p> <p>여러분들이 알게 되신 것들, 느꼈던 것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져주셨으면 국립공원에서 근무하며 안내하는 저희 입장에서 이보다 큰 보람은 없을 것 같습니다.</p> <p>한 가지 당부드릴 점은 둘레길을 빠른 시간 내에 더 많은 코스를 가려고 하시면 몸에 무리가 올 수 있습니다. 천천히 편한 마음으로 내 몸 컨디션에 맞게 코스를 선택하시어 둘레길을 돌아보시는 것이 건강에도 좋고 각 둘레길마다의 의미를 찾아가며 탐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p> <p>이어지는 다락원길 구간 탐방도 소중한 시간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북한산국립공원 도봉사무소 자연환경안내원 ○○○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p>